

#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 연구 - 근거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 A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 A Grounded Theory Approach

조준용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Joon-Yong Jo(joyhallym@hallym.ac.kr)

### 요약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자활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총 12인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삶의 경험, 자활의 경험 및 성공과 실패, 변화 및 자활 전망에 대해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분석에서 자활 성공의 인과적 조건으로 일과 교육의 기회 및 자활을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다. 중심현상은 자활 제도에 적응하며 현상유지와 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맥락적 조건들은 피하고 싶은 빈곤 경험 및 안정적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실패를 경험한 경우, 내부의 갈등과 수익창출 실패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부족한 자활공동체 지원과 통합급여 방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 하에서는 공동체로 독립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목표를 향한 인과적 조건과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입안자와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현행 자활모델이 보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자활유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중심어 : | 종단적 질적연구 | 근거이론 | 자활제도 | 자활유인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through a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from 2006 to 2012. Based on Grounded theory approach, it examines how participants managed their lives up to now status. Through open-coding process, 181 meanings were identified. Paradigm model shows that the goal of the self-reliance program can be viewed as causal condition. However, contextual factors such as poverty experiences and child-support affected th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to adapt and stay in the program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The finding shows that the meaning of self-reliance are differently understood by policy makers and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 keyword : |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 Grounded Theory | Self-Reliance Program | Self-Reliance Incentive |

\* 본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신진교수지원-인문사회분야)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2-B00256).

접수일자 : 2013년 09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9월 27일

수정일자 : 2013년 09월 24일

교신저자 : 조준용, e-mail : joyhallym@hallym.ac.kr

## I. 서론

본 연구는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 연구(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를 실시하여, 자활 참여자의 삶의 경험과 자활 경로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6년에 실행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와 사회투자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20]에 참가한 22명의 자활참여자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적하고,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여, 지난 4-6년간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활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새로이 공공부조 제도로 편입된 근로능력자(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자활제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타났다. 특히, 성과중심의 자활을 강조하는 정책적 환경을 반영하듯, 지금까지의 자활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은, 자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분석은 확률적 사고에 기반한 변수간의 상관성 규명에 초점을 두어, 참여자나 조직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자활제도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해 일반화가 가능한 검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분석 위주의 연구방법은 자활 참여자의 다양한 노력이나 깊이 있는 삶의 경험, 더 나아가 자활현장 내의 상호작용이나 대상자의 인식 및 자활 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자활제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자활제도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리적 일반화에 기반한 사회과학 콘텐츠가 정책적 결정을 위한 중요한 지위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들어 보다 균형적인 사고를 위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질적연구가 사회복지 정책의 작동기계의 이해나 평가 차원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18].

한편,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의 지나 자활전망을 연구한 논문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횡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시간에 따른 참여자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3][12][13][17].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탐색과 그 맥락(context)을 중시하는 종단적 질적연구[24]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인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의 전망을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종단적인 경로 구조로 제시하고, 자활의 다양한 경로에 이르는 인과적 맥락을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 동향 검토

기존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에서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자활참여자들의 자활효과 및 자립전망에 대한 양적 연구들과, 근로빈곤층이나 자활참여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소수의 질적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활효과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양적·횡단적 연구로서, 이들은 주로 자활제도가 참여자들의 심리, 사회적 관계 변화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보았다[2][6][7][10][11][14-16]. 손능수[6]와 전보경[15]은 대구지역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의식변화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근로의욕 증진과 자아효능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향상, 불건전한 생활의 절제 등을 포함한다. 이상록·진재문[10]은 경남 및 전북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활사업이 자립태도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립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형하, 조원탁[14]은 광주지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효과를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고, 자활사업이 경제적 자활에는 큰 기여를 못했으나,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는 기여하였다고 한다. 정원오·김진구[16]는 경기지역 자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동료, 직원 등과

의 관계에 만족하며, 생활태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나, 자립전망은 개인 및 인적자본 특성이 자활사업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이상록·진재민[10]과 동일한 것이다. 한편 엄태영 외[7]는 대전 지역의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자활실무자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자활이 높아짐을 밝혔고, 이영철·김소정[11]은 광주지역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활사업 집행기관이 시민사회단체일 경우 보다 자활효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때 자활효과는 경제적 자활, 역량강화, 고용안정성, 인식 및 태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김운기·정민숙[2]은 감정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통해 자활사업성고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활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자활의 태도나 인식을 수치로 환원하고, 이를 횡단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에 머물고 있어, 자활효과에 대한 인과적이고 맥락적인 해석이 어렵고, 자활의 다양한 경로처럼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한 것들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식변화를 척도로 양화한 이상의 연구와 달리,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자활의 효과를 나타낸 질적인 연구도 있다. 이은주[12]는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16명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이때 자활사업 참여자 7명 및 자활경험자가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활이 생존을 위한 보호의 태두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자활의 기능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여성에게 자활은 자녀양육이라는 보호노동의 적절한 수행과 생계부양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생활전략이지만, 남성에게는 자활은 전문성과 기술이 부족한 여자들을 위한 일이며,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부각되었다. 이태진 외(2008)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의 일환으로, 전담공무원 39명과 수급권자 20명을 포함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수급권자가 느끼는 근로의욕 및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급여체계 및 급여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근로유지형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내용이나 수준도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 취로사업에 불과해 자활의욕 고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급여체계 및 방식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2006년 서울지역의 22명의 자활참여자와 3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활사업의 빈곤완화 및 사회투자효과 분석을 시도하여, 자활사업이 경제활동 참가 장벽을 제거하고, 인적자본 향상에 기여하며, 사회자본(사회연결망, 사회봉사)을 형성하는 매커니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20]. 또한, 최종혁·김수완[17]은 자활 사업에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형성 및 약화 구조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여, 이질적인 참여자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주문하였고, 백학영·조성은[4]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활 경로 선택에 드러난 전략성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의 선택이 합리성에 따른 선택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 역시, 한 시점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활의 경로에 대한 요인이나 맥락, 인식의 변화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기존 연구들이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종단적인 자료 생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서야,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5년간 추적조사를 하여 이들 상당수가 자활에 성공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승하였다는 종단연구가 나타났다[5]. 또한, 또 다른 추적조사를 통해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고, 정책의 사후적인 영향과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본 종단연구가 나타나기도 했다[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여전히 자활 참여자에 대한 변화의 기술에 그치고 있어, 자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경로와 인과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2006년 실시했던 질

적연구에 참가한 22명의 자활 참여자들이며, 이들을 2010년부터 2년간 추적하여, 연락두절 및 불참의사를 밝힌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12인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2006년 최초 선정된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의 6개 지역자활센터를 유의표집 한 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면접을 통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급번 연구의 진행을 위해, 연구자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6개 지역자활센터를 재방문하였는데, 이 중 5곳의 센터장(관장)이 아직도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5명의 센터장을 면접하여, 2006년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자활 참여자들이 그동안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6년 당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부터 받은 고지된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에 기입한 연락처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 중 5명은 연락처가 바뀌었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또 다른 5명은 인터뷰를 미루거나 기피하였는데, 그 사유는 지난 자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3),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2) 등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윤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활참여자이므로, 엄격한 연구윤리의 준수가 요구된다. 급번 두 번째 웨이브에 해당하는 조사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고지된 동의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면접내용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면접 내용은 녹취하되 전사(transcription)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연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위험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공지를 받은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 3. 연구의 엄격성

흔히들 질적연구가 비과학적이라는 편견은 질적 연구가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하는 양적연구와 다르다는 인식론적 관점

의 차이를, 비과학성으로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실 질적연구에서도 엄격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질적연구는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이론적 일반화(theoretical generalization)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19][21-23][25], 결코 비과학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를 추구하였다. 우선 녹취된 면접자료와 함께 현장노트를 기록하였고, 참여자가 속해있던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활 경로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참여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료의 코딩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 2인으로부터 비교분석을 통한 범주화 작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활 참여자 패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Strauss & Corbin[26]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근거이론은 현상에 대한 기술적 묘사를 넘어서, 과정에 대한 추상적, 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 경험 및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활의 다양한 경로의 맥락을 중단 자료를 통해 인과적인 구조를 생성하는 이론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접근은 타당한 분석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질적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연구자 자신임을 인지하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활의 경험과 전망에 대한 인식의 기술과 변화의 맥락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자활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횟수는 최소 2회, 면접시간은 110분에서 150분까지 소요되었다.

녹취된 면접내용은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세심하게 읽었으며, 관찰기록 및 현장노트를 참조하면서, 개방코

딩, 축코딩과 같은 일련의 근거이론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분석자료를 읽어가며 반복적으로 분류와 코딩, 비교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경험과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축코딩은 범주와 하위 범주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등의 연관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위해 본 연구는 질적연구 패키지인 Nvivo 10.0 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참여자의 특성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12명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자활참여 형태, 일자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지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연구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52세이며, 남성이 2명, 여성이 10명이며, 학력의 최빈값은 고졸이었다. 이들의 2006년 당시의 자활사업 참여현황을 보면, 8명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었고, 4명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였다. 이들 8명의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2012년 현재 실업(1), 자활사업단 지속 참여(1), 자활공동체(2), 일반취업(4)으로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경험하였고, 4명의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경우 2012년 현재 실업(1), 사회적기업(1), 일반취업(2)으로 노동전환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당시 12명 모두가 조건부 수급자였으나, 2012년 현재에는 이들 중 3명만이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3명은 모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였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노동전환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자활의 경로와 맥락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번호	나이	성	학력	2006년 자활사업	2012년 현재 일자리	2006->12년 수급변화
N-1	51	여	고졸	장애이통합교육(자활사업단)	장애이동 보조교사(일반취업)	조건부->수급탈피
N-2	49	남	대중퇴	폐컴 재활용(자활사업단)	사무기기(자활공동체)대표	조건부->조건부
N-3	40	여	대졸	재활용 사업단(자활사업단)	어린이집교사(일반취업)	조건부->수급탈피
N-4	53	남	고중퇴	도시락 사업단(공동체)	(사회적기업)대표	조건부->수급탈피
N-5	59	여	대졸	장애이통합교육(자활사업단)	보육교사(일반취업)	조건부->수급탈피
N-6	53	여	중졸	간병(자활사업단)	가사간병(일반취업)	조건부->수급탈피
N-7	53	여	초졸	편의시설(자활사업단)	가사간병(일반취업) 후 실업	조건부->수급탈피
N-8	49	여	중졸	두부김치(자활사업단)	방문요양(자활사업단)	조건부->조건부
N-9	52	여	고졸	분식 사업(공동체)	스넥사업(일반취업)	조건부->수급탈피
N-10	56	여	고졸	식당/도시락(공동체)	현재 실업(건강나눔)	조건부->수급탈피
N-11	48	여	고졸	꽃집(자활사업단)	꽃집(자활공동체)대표	조건부->조건부
N-12	60	여	고졸	김치/반찬(공동체)	가사간병(일반취업)	조건부->수급탈피
평균	52	남:2 여:10	중졸이하:3 고졸이하:6 대졸이하:3	사업단:8 공동체:4	실업:2 자활사업단:1 자활공동체:2 사회적기업:1 일반취업:6	수급탈피: 10 수급유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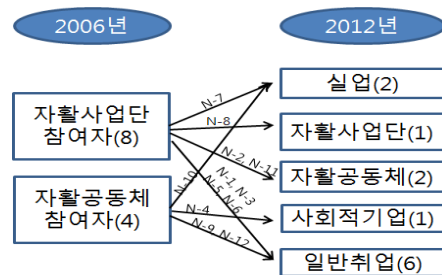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참여자의 자활 경로

##### 2. 개방코딩 결과

연구 참여자 12인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줄단위 분석과 비교분석 절차를 통해 얻어진 개방코딩(open coding) 결과,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다시 44개의 하위범주와 18개의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5년 간의 삶의 경험	가사 도우미라도, 공부 못시킨 아쉬움, 군대맡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배고픈 것 보다 더 큰 설움, 나는 독립할래 요, 엄마처럼 안살까야, 뒷바라지 못한 안타까움, 알바는 안돼, 애매한 성적, 혼자 키우는 어려움, 자녀에 대한 연민의 마음, 자녀의 모범이 되어야	안타까움과 헌신	자녀 교육
	감시, 무시, 낙인, 없지만 차라리 내가 낫다, 자존심 상함, 차별, 멸시, 교육지원 티나지 않게	무시와 차별	빈곤한 삶의 경험
	무력함, 사회생활 회피, 행동의 제약, 꿈없는 삶, 자기상실, 내인생 같지 않음, 힘든 그 자체	내인생이 없어짐	
	가족의 단합, 오히려 잘자라난 아이들	위기 극복의 비결	
	미래를 위해 참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기, 애기같은 마음, 애들만큼은 잘 키워야, 애들에게 부담주지 말기, 애들이 기쁨조, 종교	유지의 비결 (심리)	살을 유지하는 법
	다양한 후원, 목구멍이 포도청, 몸이 부서져라 다른 일 하기, 없으면 없는대로 빛은 안돼	유지의 비결 (재정)	
	권력, 가족이면 안돼, 돈보다는 가족, 돌다 멈춰야 내것, 마음이 부자, 만족이 중요, 맞추어 사는 것, 목표가 되어 선 안돼, 아이들에 투자, 잘써야 한다.	돈의 의미	
	공부, 행복을 가르쳐 줌,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빈곤의 긍정	빈곤 삶에서 깨달은 것
	더 어려운 사람을 보는 이유, 힘든일에 적응하기, 더 어려운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기, 더 어려운 사람은 나의 미래	삶에 대한 태도	
	학비 큰 도움, 너무 엄격한 자산 제도 적용	기초법 제도	
억압	수급권의 의미	제도의 경험	
해방과 자유	탈수급의 의미		
자활 경험 및 성공과 실패	경청해주시기 필요, 봉사정신, 융통성 필요, 감사함, 교류	실무자의 자질	실무자의 노력
	일 중심으로 변함	업무지향	
	교육 기회, 학교생활, 대학문턱을 넘은 기분, 삶의 활력소, 성숙한 태도 변화, 소통되는 경험, 책임기	교육경험	
	무기력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림, 사업수완 배우기	사회생활	자활이 제공한 기회
성공과 실패	자활 열정과 원동력	일할 기회 제공	
	아이들 키울 수 있음, 자활 근로의 안정성,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음, 고생 덜함, 돌고 돌기	제도 안주하는 이유	자활에 적응해 버림
	급한 불끄기, 꿈없는 무방비 상태, 끼리끼리 만나, 아쉬운 시간들, 젊은 사람 오지마, 희망이 없어	제도의 무의미함	
	수급지위따라 갈등, 마음상함, 이제 싫어요, 인간관계 회의, 내돈 아니면, 개인에게 맞는 사업이나	갈등	공동체의 실패
변화 인식	외부여건, 밀천없이 힘들어,수지타산 안맞아,불안정성,지원부족,충당식으론 안돼, 자산형성 힘들어	경영 힘들어	
	거주지 수정, 공동체 거부	탈수급 안하는 방법	탈수급 안하기
	나가면 손해, 보장성 부족, 아기가 어렵, 학비격정	탈수급 안하는 이유	
	의료·교육만 되면,자격증 따기,자녀 잘키우기, 쪼으면 나가지, 취업,탈수급 시기 계획,차상위로 가야	탈수급 계획	탈수급하기
자활의 전망	자녀의 성장, 자녀의 취업, 스스로 그만둠	탈수급 이유	
	수급지위, 현재 하는 일, 수입, 재정상태	시장에서의 지위	현재의 삶
	행복, 인생의 적금	하는 일의 의미	
	감사, 우쭐함, 익숙지 않은 행복, 즐거움, 힘든 과거의 대가, 부러움을 살	긍정적인 심리상태	현재의 심리상태
자활의 전망	우울, 고민	부정적인 심리상태	
	개인의 노력 부족, 교육부족, 빈곤의 덫, 윤리적 태도, 자포자기 사고, 나와 다른 남	빈곤의 원인 인식	
	자활이 편한 것 이해는 되는데, 자부심	세금내는 입장	
	희망플러스 통장	자산형성	
	자격증 따기	커리어 준비	자활 준비
	자활은 삶에 대한 저축	마음가짐	
	자녀성공, 자녀성장, 자녀가 로또	자녀 잘 키우기	
	아름다운 인생, 이보다 나은 삶	5년뒤의 모습	
	내 인생 즐길것, 봉사하는 삶, 여유로운 삶, 인생 강사	먼 미래의 모습	
	출로서기 준비, 초라할까 두려움	심리적 자활 준비	앞으로의 삶
자활의 전망	국가 연금제도, 자산	재정준비	
	가난 있기보다 움직여야, 공부와 기회, 발전이 있어야, 비전있음, 일을 통한 치료	제도의 긍정적인 면	자활제도의 전망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구조적 지원, 적성에 맞는 사업	자활 성공 요건	
	기간제한	엄격하게 해야	자활의 바람직한 방향
사고의 전환-나중에 투자가 된다, 장기적인 안목, 대물림은 안됨, 먹고사는 것 이상	투자적인 사고		

먼저 자활 참여자의 지난 5년간의 삶의 경험에 대한 개방 코딩에서는 자활 참여자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험, 빈곤한 삶의 경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경험 등이 핵심 범주로 나타났다. 빈곤한 환경에서 자녀교육을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 사회적으로 무시와 차별을 겪고 자신의 삶을 상실했다는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참고 견뎌내며, 주어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삶을 유지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빈곤이라는 경험이 인생 공부의 기회가 되어,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 견뎌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자활의 경험 및 성공과 실패의 경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각자가 경험한 자활제도의 기회, 자활제도에의 적응과정, 공동체 실패의 경험 및 탈수급과 관련된 경험들이 도출되었다. 실무자들을 통해 자활제도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업무와 성과를 너무 강조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경험들은, 지난 5년간 성과지향형 자활을 강조해온 제도의 변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자활 제도의 경험을 통해 교육을 받고 삶의 활력을 느끼며,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것은 자활의 비금전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의 핵심은 자활제도의 목표와 현실에서의 적용간의 괴리로 나타났다. 즉, 자활제도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 탈수급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목표보다, 제도에 적응하면서 최소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현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맥락이 범주 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는 다음의 패러다임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현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삶의 모습과 현재의 심리상태로 범주화되었다. 자녀의 성장과 취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탈수급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현재 하는 일을 인생의 적금으로 표현하며, 지난 세월 익숙하지 않았던 행복감을 표출하기도 하였고, 이제는 납세자의 입장으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활 공동체의 실패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심리상태

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험과 별개로 빈곤을 객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나와 다른 남, 빈곤에 대한 윤리적 태도 취하기로 개념화 되었다.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했던 참여자들도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노력과 교육부족,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끝으로 자활의 전망에 대해서는 자활에 대한 개인의 전망과, 자활제도의 발전 전망으로 범주화 되었다. 개인적으로 자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산 형성과 커리어(career)준비, 자활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주요 개념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노년의 삶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준비가 필요함도 나타났다. 자활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개인의 변화 및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화된 유인의 제공과 엄격한 접근이 필요로함이 개념화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장기적으로 대물림을 막고,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낼 것이라는 투자적 사고가 개념화 되었다.

### 3. 패러다임 분석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기반하여, 자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패러다임 분석을 실시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축코딩 분석에 따라 자활의 경로 및 성공과 실패라는 현상과 관련된 조건들을 제시한다. 패러다임 분석은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과, 현상과 관련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 그리고 현상을 다루는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consequences)를 포함한다[26].

앞서 [그림 1]에서 나타나듯 2006년 연구 참여자들의 2012년 현재 노동전환은 실업, 자활사업단의 유지,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그리고 시장의 일반취업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중 자활의 성공과 실패라는 정책적 기준으로 본다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거나 시장의 일반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실시한 개방코딩에서는 이러한 노동전환 형태가 자활

이라는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 제도에 적응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개별적인 자활 대책을 준비하면서, 제도가 허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의 목표와의 힘겨루기를 시도하며, 제도의 보호 속에서 양육과 개별 자활 대책들을 마련한다. 이러한 자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패러다임 분석은 [표 3]으로 제시되었다.

표 3. 패러다임 분석

조건	범주
인과적 조건	자활제도의 목표 / 일과 교육의 기회 / 실적 향상 / 자녀의 성장
중심 현상	제도에 적응하고 안주하며 현상유지하기 / 일을 통한 위로와 활력 / 공동체 실패의 경험 / 탈수급
맥락적 조건	다시 경험하기 싫은 빈곤한 삶의 경험 / 자녀양육의 책임 /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
중재적 조건	공동체의 불안정성/ 부족한 공동체 지원 기초법 제도의 뒤틀림 (개별급여 불가, 보충급여방식)
작용/상호작용 전략	안정적인 수입원 찾기 /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공동체 거부 / 개별 자활 전략(저축, 자녀교육, 자격증)
결과	안정된 삶의 추구 / 자신 스스로 정의하는 자활 / 자활의 의미 찾기

### 3.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유발하는 사건들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심현상인 자활제도에의 적응과 안주, 자활의 성패, 탈수급의 경험 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과 교육의 기회, 자활제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성장이 이에 해당한다.

나야 뭐, 그때만 해도 일할 수 있는 거를 쫓으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힘이 됐거든요. 자활이란 나한테 원동력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참 일하는데 참 즐거웠어요. (N-12)

(자활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행복했죠,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대학 수능에 합격한 그 기분으로 갖고 울었어요.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학교생활 ... (N-6)

요양보호(자격증) 따는데 (기관에서) 도와주는 거죠, 두달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자활은 ... 학문쪽으로 이렇게 연관된 자활 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를 좀 많이...(N-8)

우리 딸이 취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탈수급)... (N-4)

애들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탈수급) 나왔었잖아요 (N-6)

### 3.2 중심현상과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에서 나타난 범주에 따른 중심현상들은 자활제도의 적응과 안주, 자활 성패, 그리고 탈수급에 대한 경험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현상의 핵심은, 자녀가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탈수급 할 때까지 자활제도에 안주하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활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 보다 안정적인 현상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활 제도의 목표에 부응하기보다는 제도에 안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지난 5년을 동일하게 자활근로에 종사했던 참여자의 경우(N-8), 자활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녀양육을 하는 것을 자활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자활참여 이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시장에서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빈곤의 경험에서 느꼈던 무기력감은 이러한 중심현상에 이르는 하나의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예, (수급권/자활) 탈퇴를 못했어요... 아,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혼자 벌어서 키워야 되...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애가 다 크면) 힘든 일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많이해요, 무슨일이든 닥치는대로 힘든일을 많이해서... (N-8)

내가 급할적에 ... 잠깐만 발붙이지 그랬던게 ... 왜냐면 내가 경황이 없으니까 (N-5)

한편 지난 5년 사이 공동체로 독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참여자들은 창업 초기의 열정과 달리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쉽지가 않다. 이들은 공동체를 통해 경제적 자활을 꿈꾸며,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보람과 삶의 활력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은 보충급여 지원 없이는 수지타산이 안맞고, 부족한 정부 지원 때문에 밑천도 없이 힘들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공동체의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 그리고 '아, 뭔가를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장사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노하우는 생겼죠. 5년동안... (N-11)

맡천없이 장사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내가 급할적에 ... 잠깐만 발 붙이자 그랬던게 ... 약간의 한 4-5천만 있으면 확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빌릴때가 없어요. (N-2)

자활이 나를 두 번죽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고 왔는데 이렇게 (공동체) 맡겨놓고 도와주지 않고 고생을... (N-4)

2006년 당시 공동체를 하다가 5년 뒤에는 시장의 일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공동체의 실패 경험이 자활의 중심현상이었다. 이들은 공동체 내의 갈등과 수익 창출 실패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공동체를 접었던) 큰 이유는 뭐라 그럴까? 수지타산이 안맞아 갈등을 유발 시킨거예요. 더 안좋은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자활 같이 일을 하다보면...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N-9)

그리고 가게가 그냥 네사람이 그 나이들은 다 있으니까, 살아온 경험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니까 자기 고집이 있는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참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 다섯명이 마음이 상한거예요 (N-12)

### 3.3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한편 이러한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동체로 나가면 자활제도의 지원이 끊기고 소득이 불안정해지며, 탈수급이 일어나면 향후 아무런 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통합급여제도라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촉진된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 하에서는 공동체로 독립하는 것을 생계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위협을 회피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제공되는 자활근로에 안주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택하게 된다.

애도 있지만 물질적인 그것도 ... (공동체는) 잘 돼야지 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활제도가 잘 안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공동체에)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욕심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여기서 잘돼서 성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

니까 자기네 욕심이지... (N-8).

한편, 자녀가 성장하여 졸업을 하면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어 탈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자들은 자활공동체나 시장의 일반 일자리 취업, 혹은 개별 자활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택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진짜 따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큰애가) 고3이고 하다보니까 이제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할 게 없구나, 그래도 자격증 하나가 없다... (N-8)

저도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안나가요. 이제 왜 안나가는지를 깨닫는데 너무 늦어버린거예요. 아 이래서 공동체를 안나가는구나, 왜냐면 개인에게 너무 마이너스고, 이거 아니어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스템에 편하게 소속되어 돌아가면 편한데, 굳이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정하게 할 필요 없는데... 적자나죠. (N-11)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공동체 참여는 가급적 거부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중재적 조건이 있을 때에만 참여하거나, 개별적인 자활 전략을 구축하여 희망키움통장이나 자격증 취득, 그리고 자녀교육에의 헌신을 통해 탈빈곤 희망을 갖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들은 자녀가 성장하여 탈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희망키움통장) 근데 그거 아무거나 못쓰잖아. 그게 이제 집을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계약서를 낸다든가 창업을 한다던가 ... 저는 이제 남편이 그거 한다고 사연을 썼잖아. 남편이 가게가 너무 조그맣고 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갖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부어야 돼 (N-7)

### 3.4 결과

이상과 같이 자활제도 참여자들의 지난 4-6년간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인식, 삶의 변화를 토대로 자활의 경로와 성공과 실패 경험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과적 조건과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

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자활의 의미 찾기' 라는 과제가 떠오른다. 지난 4-6년 동안 변화하는 모습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자활의 전망에 대한 인식들은, 참여자가 자활을 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 맞추어 해석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자활제도에 적응해나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자활제도의 중심현상과 관련된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속에서, 스스로 자활을 재정의하고, 자활제도를 활용하였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제도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교육, 훈련,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 일반 시장 취업 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자녀의 교육에 헌신했으며, 자신이 정한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자활제도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빈곤의 트라우마를 피하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보여진다.

## V. 결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자활제도 참여자들의 중단적인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인식과 자활경로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삶의 경험, 자활의 성공과 실패, 변화 및 자활 전망에 대해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 분석에서는 자활의 성패나 탈수급,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활제도에의 안주와 현상유지가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의 맥락적 조건들은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자녀양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불안정한 공동체 및 통합적인 급여 방식은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추구하며 개별 자활 전략을 세우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자활을 두려워하는 제도의 목표와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현행 자활제도가 제시하는 자활경로가 보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 및 그들의 시각 및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맥락적, 중재적 조건은 왜 자활에 안주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을 자활제도의 목표와 정합성을 이루도록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자녀교육과 공동체 창업에 대한 근심을 덜어주는 개별급여제도나 개인 맞춤형 급여의 도입, 자활 공동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 자산형성을 통한 창업 지원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과 조건들을 보다 개별화하고 유형화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최중혁·김수원[17]의 연구나 유태균·김경휘[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목표와 중심현상간의 괴리는 정책 입안자와 정책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백학영·조성은[4]은 자활 참여자들의 경로 선택은 그들의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주장하였고, 본 연구는 이를 자활 참여자들이 제도를 활용하여 살아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행위의 원리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유발하여, 현실성있고 지속가능한 자활 정책도입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자활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중단적 자료를 사용한 연구임에도 참여자 개개인의 역동적인 삶의 경험과 변화의 모습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분석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변화의 역동성과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참고 문헌

- [1] 김교성,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1호, pp.43-82, 2011.
- [2] 김운기, 정민숙,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내부마케팅, 사회적 교환관계, 개인특성이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직몰입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63-276, 2013.

- [3] 백학영, 고미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0권, pp.83-114, 2007.
- [4] 백학영, 조성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경로와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5] 백학영, 조성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pp.143-178, 2012.
- [6] 손능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pp.729-759, 2005.
- [7] 엄태영,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 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8권, pp.1-24, 2008.
- [8] 유태균, 김경희,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 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30권, pp.39-70, 2006.
- [9] 유태균, 윤성원,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1호, pp.85-108, 2012.
- [10] 이상록, 진재문,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제52호, pp.241-272, 2003.
- [11] 이영철, 김소정, “자활사업 집행기관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227-252, 2009.
- [12] 이은주,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근거이론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4권, pp.331-356, 2008.
- [13] 이태진,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전담 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14] 이형하, 조원탁,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호, pp.217-244, 2004.
- [15] 전보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산적 측면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권, pp.57-70, 2003.
- [16] 정원오, 김진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35-67, 2005.
- [17] 최종혁, 김수완, “공식화된 빈곤층의 자립의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4권, 제4호, pp.165-200, 2012.
- [18] 홍현미라, “사회복지 거시실천에서의 질적 평가 연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3호, pp.292-318, 2011.
- [19] A. Bryman,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Routledge, 1988. 홍동식·조정문·고승환 공역,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전문출판사, 1992.
- [20] J. J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Effects on Poverty and Social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7.
- [21]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1998.
- [22] C. Park and H. Lee, “What Makes A Case Study Really Qualitative?: Show Me Your Evidence, Please!,” *English Teaching*, Vol.65, No.4, pp.81-103, 2010.
- [23] A. Rubbin and E.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5th Edition), Thomson/Brooks, 1995.
- [24] J. Saldana,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nalyzing Change Through Time*, Altamira Press, 2003.

- [25] J. Saldana, *Fundamentals of Qualitative Research: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26]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8.

### 저자 소개

조 준 용(Joon-Yong Jo)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12월 : U.C. Berkeley(사회복지학과) (Ph.D)
- 200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빈곤과 자활, 사회정책이론, 국제사회복지